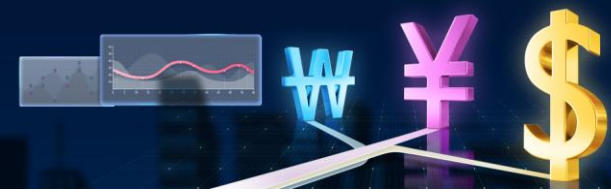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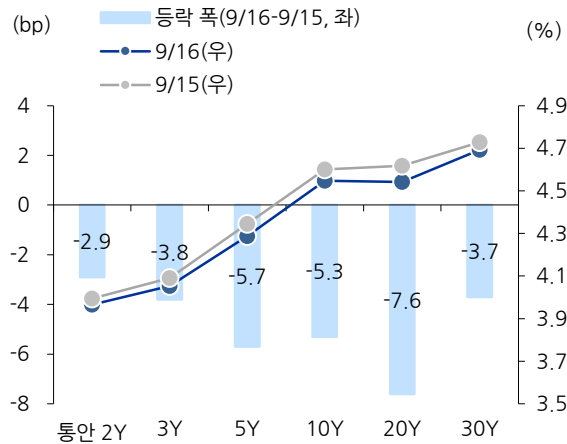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FX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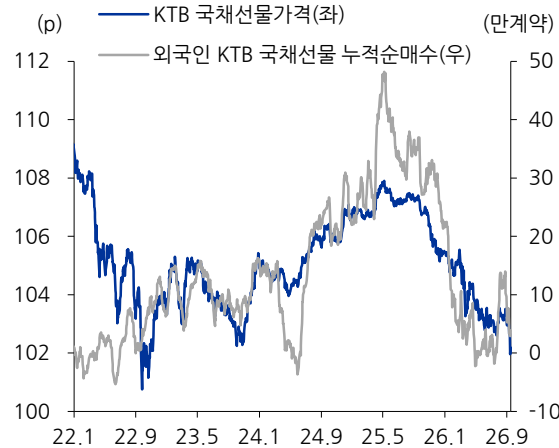
(단위: %,bp, 톱)

		9/16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4.053%	-3.8	14.3	110.0
	한국 국고채 10년물	4.547%	-5.3	14.6	116.2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49.4	50.9	49.1	43.2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2.19	23.0	-85.0	-325.0
	10년 국채 선물(LKTB)	103.28	58.0	-184.0	-964.0
	미국채 2년물	4.738%	7.4	30.6	126.6
	미국채 10년물	5.024%	2.2	18.1	85.6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28.6	33.8	41.1	69.6
	독일국채 10년물	3.514%	-2.6	5.9	65.9
	호주국채 10년물	5.354%	-6.2	14.3	60.0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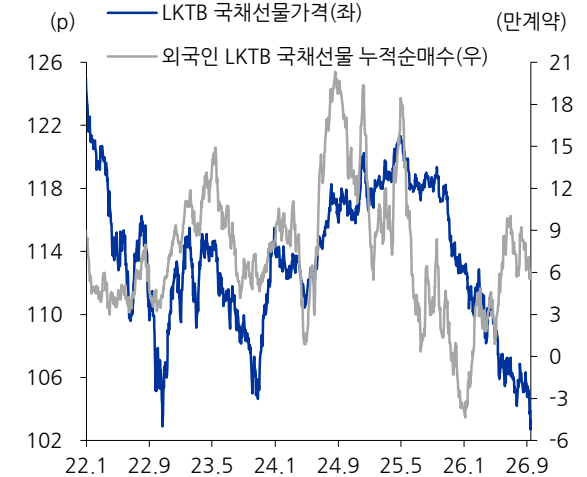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 저가매수 영향.
- 간밤 유가 상승 및 미국 금리 긴장, FOMC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리 상승폭이 컸다는 인식 하에 저가매수 유입되며 금리 전 구간 하락세 보임.
- 아시아 장에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미국 금리도 추가 상승이 제한됨에 따른 영향도 컸음. FOMC 인상은 이미 반영된 가운데 추가 인상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며 금리 변동성은 크지 않았음.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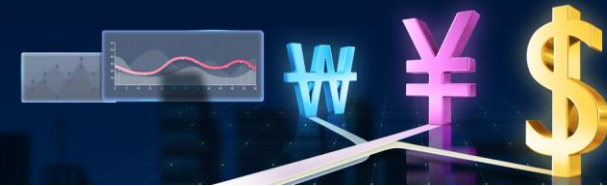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 FOMC 반영.
- 9월 FOMC 예상대로 기준금리 만장일치 인상. 연내 추가 인상 시사했고,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단기물 중심 금리 상승폭 확대.
- 워시 의장, 이번 인상으로 완화 정도를 일부 제거했으나 금융여건이 긴축적이지 않다는 연준 내부 의견을 전달. 경제전망을 통해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강할 것임을 전망했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반영하며 커브는 플래트닝 진행.

자료 출처: 연합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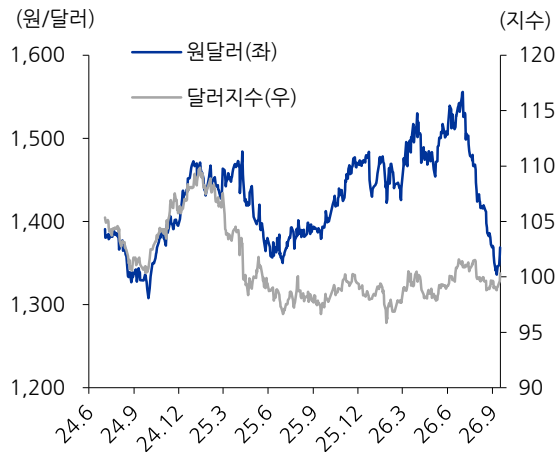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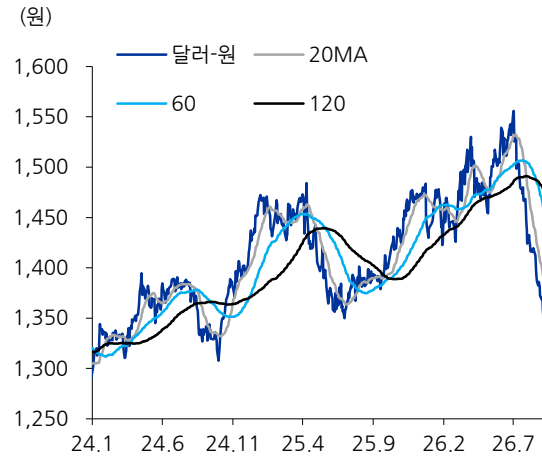
(단위: %, \$)

		9/16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368.60	0.7%	2.4%	-4.9%
	달러지수	100.31	0.7%	1.5%	2.1%
	달러/유로	1.15	-0.7%	-1.4%	-2.4%
	위안/달러(역외)	6.71	0.0%	0.1%	-3.9%
	엔/달러	156.24	0.8%	1.7%	-0.3%
	달러/파운드	1.34	-0.7%	-1.2%	-0.6%
	헤알/달러	5.16	0.1%	1.0%	-6.5%
상품	WTI 근월물(\$)	102.43	-3.2%	6.6%	78.4%
	금 현물(\$)	4,263.49	-0.7%	-3.1%	-1.3%
	비트코인(\$)	76,085	-0.1%	-2.9%	-13.4%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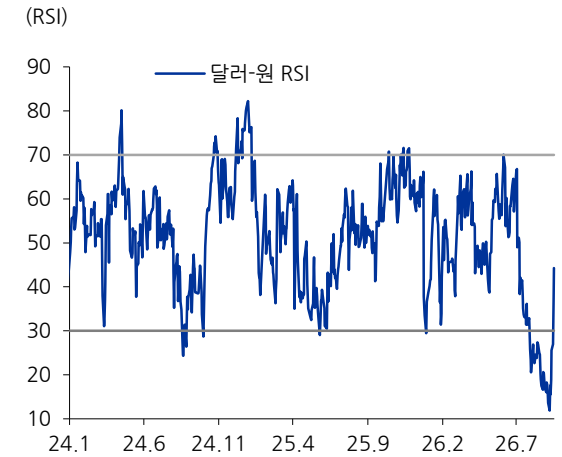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유가·금리 상승과 美 FOMC 앞둔 경계에 +9.20원 오른 1,368.60원 마감(야간 1,377.00원).
- 사우디 안부향 선적 중단 소식 등에 국제유가 상승하고 5% 상회하는 美 10년물 금리가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
- 연준 9월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총 -11.9조원)하며 달러 매수세 우위였음.
- 달러-원은 매파적 FOMC에 따른 달러 강세로 야간거래에서 +8.40원 추가 상승. 올해 한미 기준금리차 재확대 가능성 높아졌고, 7~8월 달러-원 낙폭이 가팔랐던 만큼 되돌림 불가피한 환경. 다만 경상흑자와 국내 자금유입(원화 환전) 요인 고려할 때 달러-원 상방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매파적 FOMC에 급등(DXY +0.7%).
- 연준은 9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3.75-4.00%)하고 점도표에서 연내 1회 추가 인상 및 내년 동결을 시사. 워시 의장이 금융 여건이 제약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는 등 전체적으로 매파적이었음.
- 美 국제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하며 베어플랫, 달러는 높아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반영되며 강세.
- 한편, 국제유가는 사우디가 오만 소하르항 인근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원유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